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6년도 표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엡4:13)

⊗ 생활지침 ⊗

섬기는 생활
주는 생활
경건한 생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종교개혁 제 479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 · 성경 · 교회로 돌아가자

오늘 종교개혁 제 479돌을 맞는 주일이다. 역사적으로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뤼테베르크 성당에 95개조 격문을 써붙이면서 종교개혁의 불을 당겨 오늘날 개신교회를 태동시켰다.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카톨릭 교회의 전통보다 성경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다. 선한 행실이나 공로보다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과 교황이나 신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만인제사장론을 내세웠다.

다시 말해서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외쳤던 것이다.

세월이 흘렀지만 종교개혁은 오늘날까지 진행되고 있다.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이후에도 교회는 안팎으로 극심한 도전을 받았다. 진정한 사랑이 없이 사변적인 신학에 치우쳐 있을 때 교회는 각종 도전을 맞이해야만 했다.

자유, 평등, 박애를 외쳤던 프랑스혁명은

당시 왕권과 야합했던 교회를 겨냥했다. 공산당 선언은 교회가 구제와 나눔을 실천하지 못할 때 태동되었다. 19세기 니체는 교회의 잘못된 경향을 보고 "사신사상"을 주장하며 무서운 도전을 해왔다. 20세기 들어서도 전쟁과 분쟁중에 교회는 해답을 주지 못했다.

479년전 루터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요 구원임을 깨닫고 실천에 나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제2의 종교개혁을 통해 교회가 새로워져야 할 것이다.

「교회갱신 회원언약」 발표

한국교회갱신연구원에서는 종교개혁주일을 맞아 한국교회갱신연구원 회원언약(전문은 3면에)을 제정했다.

이 서약문은 한국교회갱신이 목회자갱신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전제하에 하나님 중심 · 성경 중심 · 교회 중심의 목회를 할 것 등 7개 항으로 구성되어 11월 4일 제 10학기 목회자세미나 수료식에서 낭독된다.

교회건축을 위한 바자



지난 주간(23, 24일) 교회건축을 위한 바자가 교회당에서 열렸다.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임박!

교회설립 5주년을 기념하면서 개최하는 전교인 암송대회가 임박했다.

이번 대회에서 외출말씀의 범위는 요한복음 17장 전부이다. 대회일정은 예선과 본선, 최종결선 등 3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예선은 11월 7일(목) 이전까지 각 교회학교별로

실시하고 각 부서별로 선발된 최우수자 1명이 본선에 오르게 된다.

본선은 11월 7일(금) 오후 8시부터 10시 30분까지 각 부서에서 선발된 최우수자들이 그동안 준비해온 암송 실력을 유감없이 발

휘하게 된다.

본선 심사위원은 이종윤 목사와 정병무 · 오정수 · 홍정호 장로이다. 이날의 본선에서는 최종 결선자 3명을 선발하게 된다.

결선은 10일(주일) 찬양예배 시에 갖게 되는데 최종 결선에 오른 3명이 동시에 암송하여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가리게 된다.

최종 결선자에게는 교회가 마련한 푸짐한 상품이 주어지며 부서별로 예선을 거친 최우수자와 우수자에게도 부서별로 시상이 실시된다.

예선은 부서별로 11월7일 전까지
본선은 7일 오후 8시~10시 30분에
최종 결선은 10일 찬양예배시 실시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예배 시 10월 새가족 환영회

10월에 등록한 새가족은
예배 전 인도자와 함께
예배실 앞에 마련된 환영석에 앉아 주십시오.



* 10월의 새가족 *

김영임	정혜인	장수전	이애자	김두희
곽은정	조은경	유관승	서창원	김기수
정하자	김현철	오혜원	김현진	김미정
이혜란	김경자	서정운	최미석	김진기
박현아	장석교	이민리	최양순	배영준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지상
학교

교회의 특성 (IV) - 선교

이종운 목사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신 '기도장'이다.
교회실천기념일을 앞두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교회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17:18 - 19)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선교사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심은 이방의 빛을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으나 복음을 위하여 살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에서 보람과 가치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가지의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성도를 향하여 말씀으로 교육하며, 세상을 향하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 땅 위의 교회가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고 또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가 세상에 전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1. 세상에 보내심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18절).

선교란 곧 ‘보내심’입니다. 선교는 영어로 ‘mission’ 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라틴어의 ‘mitto, mittere, missi, missum’ 이라는 말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들은 모두 ‘보내심을 받는다’, ‘파송 받는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로서 모두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행2:1). 그런데 모이는 것만 가지고는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없습니다. 모여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흩어져 복음을 전해야 교회가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들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초막을 짓겠다고 하였습니다(마 17:4). 그러나 그들은 산 아래로 내려와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된 우리들로 인하여 우리의 일가친척이 모두 예수님을 믿

게 되고 이웃이 구원함을 받아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2. 선교의 자세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19절 상).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생활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복음 때문에 할 말도 참아야 될 때가 있고 손해가 나는 것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 들을 사람들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여서 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신 것은 구원의 사역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끝없는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희생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이 세상에는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청춘과 재산과 시간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처럼 평생을 두고 쌓아올린 명예를 하루 아침에 박차고 복음을 위하여 술한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요 17:21).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 3: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그대로 두고 그를 심판에 이르게 한다면 세상에 구원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하보다도 더 귀히 여기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3. 선교의 목적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복음을 위하여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몇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요 17:4).

자기 이름이나 내고 자기가 한 일을 드러내려고 선교를 한다면 그것은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를 하되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목적으로 선교해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마 10:1, 요일 3:8).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고 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것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며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므로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믿게 할 때 바른 선교가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해야 합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선교의 성패는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행2:42, 45, 47).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의 모든 것을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선교에 대한 결론을 다음의 네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롬11:36, 히13:15, 요15:8).

둘째, 선교의 자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요 6:44).

셋째, 선교의 권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힘입어 선교해야 됩니다.

넷째, 선교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입니다(행 6:7, 12:24, 19:20, 골 1:25). 교회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충만해질 때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자
표정



종교개혁 제 479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교회갱신연구원 회원언약

한국교회갱신연구원(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nal)은 예언자 정신, 사도정신, 그리고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아 한국교회의 갱신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세워졌다.

나는 한국교회갱신연구원 회원으로서 하나님의 복회를 하기 위하여 다음 조항을 준수할 것을 하나님 앞에 엄숙히 서약한다.

1. 나는 교회 갱신이 복회자 갱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를 통한 자기 갱신에 힘쓴다.
2. 나는 교회갱신이 성경말씀으로 돌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고 신구약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강해한다.
3. 나는 교회갱신이 신행일치의 삶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때 확실 해짐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범적인 삶을 실천한다.
4. 나는 교회갱신이 복음화된 통일조국 성취의 지름길임을 믿고 사도적 교회처럼 한국교회 일치를 위한 화평을 도모한다.
5. 나는 복음의 사도로서 땅에 묻힌 한 알의 밀알처럼, 힘을 가진 교회가 아닌 섬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새로운 가치 창조와 기독교 문화창달에 앞장선다.
6. 나는 신구약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성경에 배치되는 모든 사상과 신앙을 배격한다.
7. 나는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중심, 성경중심, 교회 중심의 복회를 한다.



주님, 이 생명을 구원해 주옵소서!

'96 비전2000운동 태신자 명단 ③ (다음 호에 계속)

전도자	태신자	전도자	태신자	전도자	태신자
박순봉	김예란 진화숙 하상용 김명숙	장낙희 박분옥	박영재 박소희 이재숙 송옥환 고기성 고대옥 고기태 김경순	송명주	김명근 오양환 손영희 이혜숙 송근익 송근태 염윤태 이영숙
한정아	노명심 이남현	김종두	서정복 김선규 유명순	김경원	김창희 김도준 김경탁 김명희 김영신 박지원 권영하 권하경
송두심	서민희 서건희 송경숙 송희섭 김지영 조인자 유래강 장재영 송은진 송원진	허인숙	김시박 이경주 김대운 김나영 김지영 백태성 윤관오	노인덕	친금옥 백승원 이은자 박명석
장 덕	강 선 박애심 임동일	정숙자	김인용 김종덕 김숙진 김홍선	박명희	이흥진 이상석 이미경 이찬희
임인자	이명숙	김향권	한성자 윤길자 권인숙	강애희	안병옥 이은숙 안광선 김경실 안광민 전혜승 안광복 정병두 최명순 김신화
나종영	김대혁 양기철 선형기 이계진 이창진 이좌원 조영범	유복달	김연희 유은정 송정희 유광호	조정옥	조병성 이영순 조명숙 최철원 조경훈 최완옥
이혜순	이권희 정순덕 신승화 김경순 이경원 김수영 박희진 한경진	박이준	박홍준 김명혜 최요복 김경순 이태정	송혜숙	안수진 신순우 김홍국
성준경	안석현 박석준 권향숙				

목회자 단신 - 말레이시아 켈라룸푸르에서

“서울교회
새벽기도회 시간에 맞춰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서울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차가 한시간 밖에 안되어서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교회를 향

하여 엎드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 제가 참가한 ALCOE IV대회는 13개국 100여 명의 대표가 참가하여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년 전 서울에서 열렸던 아시아선교대회 참가자들이 이번에도 많이 참가해 저로서는 옛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제밤 제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평가는 제가 할 수 없으나 많은 박수와 감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서울교회를 아시아 전역에 알리는 기회도 주신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와 네팔의 대표자들과 식사시간마다 교제를 갖고 김치세미나에 대해 의논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어려운 처지라 많은 기도가 요청됩니다.

이곳 날씨는 무척 덥습니다. 하루 종일 에어컨이 작동되고 있어 코감기에 걸릴까 염려가 될 정도입니다. 서울 날씨는 어떤지요. 날씨가 좋아야 바자가 잘 될 터인데... 수고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예배당 만드시 지을 것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서울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1996. 10. 24. 이 중 윤 목사 드림

탁아부 - 학부모초청좌담회

탁아부에서는 29일(화) 오전 10시 학부모초청좌담회를 갖는다. 1부는 학부모와 아기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2부는 이영희 집사를 강사로 자녀의 신앙적 양육을 주제로 강의와 좌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부모들의 참여를 바란다.

초등부 - "작은 순례자의 합창"

초등부찬양대는 해마다 비전 2000운동기간에 찬양전도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도 11월 16일(토)에 어린이초청 전도집회 "작은 순례자의 합창"을 열기로 하고 준비와 홍보에 한

창이다.

한편 초등부찬양대는 지난 19일(토) 강남노회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가 주최하는 어린이 가을 종합발표회에 참가해 합창과 중창으로 심사위원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높은 수준의 음악적 실력을 과시하는 초등부찬양대의 꿈은 서울교회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일이다.

고등부 - 진학과 취업을 위한 기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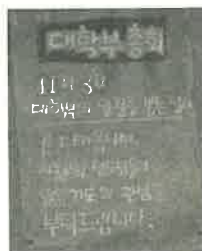
고등부에서는 오늘(27일) 오전 11시 고등부실에서 진학과 취업을 앞둔 고 3을 위한 기도회를 갖는다. 관심이 있는 모든 성도의 참여를 바란다. 특별히 지난 3월에 가진 결연예배 후

지속적으로 기도로 후원해온 성도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란다.

대학부 · 청년부 - 정기 총회

대학부와 청년부가 각각 정기총회를 갖는다. 청년부는 오늘 2시부터 총회를 열고 새 임원 선출과 회칙개정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 청년부를 거쳐간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잔치도 벌일 예정이다.

한편 대학부는 다음 주일에 총회를 열고 97년도 대학부를 섬길 새 임원을 선출한다.



오늘 교구별 노방전도 "나도 전도할 수 있다"

오늘 I · II · III 예배 후에는 교구별 노방전도를 실시한다. 12개 교구가 6개의 전도대로 나뉘어 교회 인근에서부터 논현국민학교를 비롯, 영동사거리와 강남역 주변을 돌며 전도활동을 펴게 된다.

비전2000운동의 지도를 맡은 이순환 목사는 "아직까지 한번도 전도를 못해본 성도가 있다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교구의 성도들과 힘을 합쳐 이번엔 전도를 경험함으로써 '나도 전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전도자는 반드시 어깨띠를 착용하여 표시해 줄 것도 당부했다.

오는 주일에는 교회학교별로 노방전도를 실시한다.



금주의 '96비전 2000운동

- ▶ 주일예배 후: 전교인 노방전도(교구별)
- ▶ 찬양예배 시: 10월 새가족환영회
- ▶ 찬양예배 후: 전교인 합심기도회
- ▶ 매일 오전 5시 30분: 비전2000 새벽기도회
- ▶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10시: 다니엘 기도
- ▶ 매일: 연속기도회
- ▶ 각 모임 후: 노방전도, 잃은 양 찾기
- ▶ 11월 1일(금): 금요기도회(주관부서: 5·6교구, 바울선교회, 권사회, 호산나찬양대)

'96 비전2000운동 기도제목

1.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복음전할 기회, 담대함, 지혜를 주옵소서.
2.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3. 복음 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하여 주옵소서.
4. 잃은 양을 찾게 하옵시고 각 기관과 다락방마다 배가(倍加)되게 하옵소서.
5.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될 예배당 건축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6. 복음으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북한에도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7. 우리 교회와 농촌 자매교회, 우리의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20절)

제 10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 ⑨ 10월 28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윤 목사)
· 제 2교시 / 예배의식과 교회력(H. 알렌 박사)
- ⑩ 11월 3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윤 목사)
· 제 2교시 / 세계복음화와 그리스도의 재림 (최재덕 박사)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XX 1188KHz)	성령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전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침묵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하나님 중심 · 성경 중심 · 교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2. 선교사들과 선교사의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3. 새가족의 신앙성장과 교회생활 적응을 위하여
4. 교회설립 5주년 행사를 위하여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위치

